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8월 ~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양계,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대기업, 투자합작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양계,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대기업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5. 17. 방글라데시, 투자 활성화로 인한 발전 가속화	2016. 8. 16. 방글라데시 순 FDI 비용, '15~'16 2억 달러 넘어	2016. 8. 26 방글라데시, 양계 산업의 FDI 제한 고려	2016. 9. 2 방글라데시, 양계업체들 종합식품회사로 변모
--	--	--	---------------------------------------

핵심이슈
도출

“방글라데시, 양계 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고려”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방글라데시, 양계 산업에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고려

2016년 8월 26일, 글로벌 축산 전문 일간지 Global Meat News의 보도에 따르면 나라얀 찬드라 찬다(Narayan Chandra Chanda) 방글라데시 수산가축부 장관은 양계 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방글라데시 양계 농가는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침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5개의 인도계 기업과 각각 1개의 태국, 중국계 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방글라데시 닭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방글라데시 소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방글라데시 양계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나라얀 찬드라 장관은 현재 방글라데시의 닭고기 공급은 국내 농가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며, 외국인 투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외국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현 정책으로써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의 방법은 없다. 지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두고 방글라데시 내 찬반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외자 유치는 환영하지만, 자국 산업의 발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정부의 규제로 오히려 산업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며 규제를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방글라데시의 양계산업은 수 년간 성장률 15%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성장을 지속해왔고, 향후 닭고기 수출을 통한 성장이 예상된다. 그 동안의 지속적인 투자로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품질 향상이나 생산성 증가 등의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최근 외국 기업의 시장 장악에 대한 국내의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국내 기업들 역시 방글라데시 수산가축부의 정책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비관세장벽 강화 조치에 대한 진출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